새바람 행복 경북!	**경상북도 보도자료**	2019. 10. 21(월) TEL. 054-880-4322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경북도... 케이티(KT)와 함께 소셜벤처 육성에 나서** 경북도-(주)케이티, 경북형 소셜벤처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케이티의 혁신기술을 경북 사회적경제에 지원 및 협력사 육성 ※ 10. 21일(월) 14시 30분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	 사진별첨
② **경북도, 네이처 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협의체 출범** 민선7기 공약인 백두대간 네이처 생명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추진체계 가동 국가·지방 연구기관, 지역대학 등 14개 기관 협력, 사업발굴 및 사업화 지원	미래융합산업과	 사진별첨
③ **도민이 행복한 청렴경북, 우리가 만든다!** 456명의 청렴리더들 한자리에..「제7회 경상북도 청렴도민감사관 워크숍」 개최 변화의 새바람으로 청렴경북 실현에 동참	감사관	 사진별첨
④ **경북도,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21일 도청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 가져	중소벤처기업노동과	 사진별첨
⑤ **2019년 제9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김천 문당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건부 가결'로 본격 사업추진 가능, 향후 인구유입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도시계획과	사진별첨
⑥ **두근두근 썸타는 여행 「썸남썸녀 가을에 취하다」** 단풍이 물들 듯이 사랑에 물들고 싶은 청춘남녀들의 인연찾기 시즌1「썸남썸녀 봄에 미치다」에 이어 시즌2 행사도 성황리 개최	미래전략기획단	사진별첨
⑦ **경북도, 행복을 주는 소프트웨어(SW) 체험 캠프 열어** 정보화 인재 마인드 함양 및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에 기여	정보통신과	사진별첨
⑧ **경북도,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서 '찾아가는 납세자 보호관' 통합상담창구 열어 큰 호응** 찾아가는 납세자고충상담, 지방세·국세 통합 상담서비스 제공	법무담당관	사진별첨
⑨ **경북도, 어촌 자매결연 마을 찾아 봉사활동 가져~** 21일(월), 해양수산국 직원 자매결연 어촌마을 찾아 해안가 청소 등 봉사활동	해양수산과	사진별첨
⑩ **경북도, 대학생 정책아이디어 토론 대회 예선전 개최 !** 전국 대학생 32팀 80여명 참가 열띤 토론 펼쳐져	교육정책관	사진별첨
⑪ **경북 도-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 통한 교육협치 강화**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교육청과 지자체 간 상호협력 및 해결방안 모색 김장호 기획조정실장 교육행정협의회 참석..경북 교육의 발전과 중요성 강조	교육정책관	사진별첨
★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화공 굿모닝 특강' 참석 - 이철우 도지사, '확대 간부회의' 주재 - 이철우 도지사, '제19기 민주평통 경북지역 운영위원회' 참석	대변인	

※ 10. 21일(월) 14시 30분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0. 21(월)】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산업실 사회적경제과		
		작성자	과 장	김 상 희	
			팀 장	차순애	주무관 김인걸
		연 락 처	054-880-2613		

경북도... 케이티(KT)와 함께 소셜벤처 육성에 나서

- 경북도-(주)케이티, 경북형 소셜벤처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 케이티의 혁신기술을 경북 사회적경제에 지원 및 협력사 육성 -

경상북도는 21일 도청 회의실에서 주식회사 케이티와 '경북형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케이티(KT)의 혁신기술 지원을 기반으로 경북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지원사업과 소셜벤처 활성화 및 제품 우선구매, 마케팅 협력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동반성장에 필요한 각 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공유하고 적극 협력하기 위해 체결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지난 5월부터 경상북도사회적기업종합상사(협) 주관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경북 사회적경제 청년상사맨'이 판로개척을 위해 경북도내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꾸준한 홍보·마케팅 결과 얻은 성과이며 사회적경제의 자생적 성장의 밑거름으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도와 케이티(KT)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재난안전플랫폼 서비스 기술을 지원하고 지역 협력사를 육성하며, 스마트팜, 에너지, 환경 분야 등 4차 산업혁명 및 5세대 이동통신(5G) 기반의 융합 사업 모델 발굴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가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혁신성과 사회성을 갖춘 우수 모델을 공동으로 양성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와 마케팅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근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혁신적 제품 생산과 사회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소셜벤처의 성공사례가 나타나고, 경북의 지역특성에 따른 문제를 경제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요구가 늘어난 상태이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의 혁신적인 기술들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확대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관련 영역의 내재된 기술력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케이티(KT)의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 지원과 지역 협력사 육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셜벤처 활성화는, 대기업의 역량과 자원을 사회적경제와 공유함으로써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우수한 소셜벤처에 기술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면 케이티(KT) 미래플랫폼사업부문장 사장은 “케이티(KT)는 경상북도와 함께 사람과 기술을 연결해 혁신기술에 기반한 경상북도의 사회 인프라 운영과 소셜벤처가 자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만들 것” 이라며,

“이를 위해 케이티(KT)가 보유한 기술과 경험을 지원해 경상북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경제를 선도하도록 돕겠다” 고 말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앞으로 경북도의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풀어내는 데에는 소셜벤처가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며,

“소셜벤처 활성화에 꼭 필요한 기술 지원을 담은 이번 업무협약과 같은 상생·협력 정책을 향후 여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과도 확대해 사회적경제와 소셜벤처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선도모델로 만들어 갈 것” 이라고 밝혔다.

붙임 사진자료

경상북도↔(주)KT

경북형 소셜벤처 활성화 업무협약 계획(안)

◇ KT의 ICT기반 기술지원 및 지역 협력사 육성을 통해 **경북형 사회적경제 소셜벤처 모델 구축**
◇ ICT 스마트사업 및 청년일자리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경제 동반성장**

개 요

○ 일 시 : 2019. 10.21(월) 14:00~14:40

○ 장 소 : 경북도청 사림실(309호)

○ 참석대상 : 20명 정도

- 도지사, ㈜KT 사장(이동면), 경북사회적기업종합상사, 사회적경제 관계자 등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기업의 재난안전플랫폼 서비스 기술 지원 및 협력사 육성**

- 현장시공 및 유지보수 인프라 위탁

○ **스마트팜, 에너지, 환경 분야 등 4차 산업 및 5G기반의 융합 사업 모델 발굴**

- 혁신기술을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 발전에 지원

○ **사회적기업가 창업지원 공동양성 및 사업지원**(모바일 어플개발 등)

○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및 마케팅 협력**

시간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14:10	10′	▸환 담(Tea Time)	도지사, KT 사장
14:10~14:20	10′	▸내빈소개 및 인사말씀 (KT사장 → 도지사)	
14:20~14:30	10′	▸경과보고	경북종합상사
14:30~14:40	10′	▸협약체결 및 기념촬영	협약내용 설명
14:40~	10′	▸폐회 및 장내 정리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0. 21(월)】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산업실 미래융합산업과		
		작성자	과 장	조 현 애	
			팀 장	김철교	담당자 박성훈
		연 락 처	054-880-2461		

경북도, 네이처 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협의체 출범

- 민선7기 공약인 백두대간 네이처 생명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추진체계 가동 -
- 국가·지방 연구기관, 지역대학 등 14개 기관 협력, 사업발굴 및 사업화 지원 -

경상북도는 21일 도청 회의실에서 네이처 생명산업의 전략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도내 국가·지방 연구기관과 지역대학 등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경북 네이처 생명산업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협의체는 경북 과학·산업 5대 권역 전략프로젝트 가운데 백두대간 네이처 생명산업 벨트와 연계해 주요사업을 구체화하고, 바이오산업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도내 소재하고 있는 국가 연구기관(6개), 지방 연구기관(4개), 지역대학(3개) 등 14개 기관이 정례적인 협력채널을 통해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출범하게 되었다.

이날 출범식은 경북 네이처 생명산업 혁신전략 설명과 협의체 운영계획 및 추진방향에 대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이와 함께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네이처 생명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협력 ▲지역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정보교류 및 장비 활용 ▲생명산업분야 국가 정책과제 공동개발 및 국비 사업화 지원 ▲지역 기업과 공동 연구과제 및 상용화 지원 협력 등이다.

앞으로 협의체는 기관별 업무특성과 전문성에 따라 백신·신약, 식품·생명기술, 한방·테라피·웰빙 등 3개 분야로 운영되며, 참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 중심의 사업별 실무지원단을 구성해 신규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으로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바이오산업은 미래 성장가능성과 고용효과가 크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유망 신산업으로, 바이오 생명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으로 지역의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협의체 참여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바이오 백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경북바이오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에스케이(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백신공장, 에스케이(SK)플라즈마 혈액제제공장과 국제백신연구소(IVI) 안동분원을 유치하고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건립과 백신 상용화 기술지원센터를 구축 중에 있는 등 바이오산업 관련기관이 모이는 백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계·협력을 통한 사업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협의체가 경북의 바이오산업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백두대간 네이처 생명산업 벨트는 청정자원의 보고로 이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바이오 및 소재산업의 거점으로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붙임 사진자료

경북 네이처 생명산업 협의체 출범식

네이처 생명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연구기관·대학과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사업 발굴 및 산업화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행사개요

○ 일　　시 : 10. 21(월) 15:00

○ 장　　소 : 경북도청 화랑실(254호)

○ 참　　석 : 14개 기관 40명(도, 국가·지방 출연기관 10, 지역대학 3)

※ 바이오산업 기업 대표(6)

≪ 협의체 참여기관 ≫

· 국가기관(6)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산림치유원,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 지방기관(4) :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TP, 환동해산업연구원, 포항TP
· 지역대학(3) : 경북대학교(상주캠퍼스), 안동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 주요내용

- 경북 네이처 생명산업 협의체 운영계획 및 추진방향 설명
- 기관 간 유기적 사업 연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시간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5:00 ~ 15:05	5′	▪ 개회 및 내빈 소개	
15:05 ~ 15:10	5′	▪ 협약서 서명	14개 기관
15:10 ~ 15:20	10′	▪ 경북 네이처 생명산업 혁신전략	일자리경제산업실장
15:20 ~ 15:55	35′	▪ 협의체 활성화 방안 협의	도지사(주재)
15:55 ~ 16:00	5′	▪ 기념촬영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0. 21(월)】	담당부서	감사관			
		작 성 자	감사관	이 창 재		
			팀 장	김승동	주무관	이성희
		연 락 처	054)880-4354			

도민이 행복한 청렴경북, 우리가 만든다!

- 456명의 청렴리더들 한자리에.「제7회 경상북도 청렴도민감사관 워크숍」개최 -
- 변화의 새바람으로 청렴경북 실현에 동참 -

경상북도는 21일 도청 동락관에서 청렴도민감사관 456명과 시군 감사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도민감사관의 역량 강화 및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7회 경상북도 청렴도민감사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청렴마인드 함양을 위한 청렴콘서트 공연을 시작으로 모범 청렴도민감사관 23명에 대한 표창패 수여와 청렴도민감사관 활동사례 공유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다소 어렵고 딱딱한 청렴의 개념을 샌드아트와 팝페라 공연을 통해 쉽게 이해하고, 민선7기 이철우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새바람 행복경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렴은 지역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서로의 약속임을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공직자와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청렴도민감사관의 역할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갖고, 민·관이 함께 지역의 파수꾼이 되어 비리 예방은 물론 각종 불편사항 해소에도 관심을 기울여 ‘도민이 행복한 청렴경북 실현’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한편, 경상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청렴도민감사관 제도는 1996년 명예감사관 제도로 시작해 2014년 10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역할 강화를 위해 ‘청렴도민감사관’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현재

제5기 경상북도 청렴도민감사관 456명이 위촉되어 2년의 임기동안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행정의 위법·부당사항 제보, 생활현장의 각종 불편사항 신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 신고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별 청렴도민감사관 간담회 확대 개최와 주요사업장 합동 점검으로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타 기관 명예감사관과의 교류활동 등으로 역할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공공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비리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민간감시자인 청렴도민감사관의 역할을 강화해 새바람 행복경북을 만드는데 청렴도민감사관 다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사진자료

- 변화의 새바람으로 청렴경북 실현 -

제7회 청렴도민감사관 워크숍 개최

❖ 23개 시·군 청렴도민감사관이 함께하는 워크숍을 통해 청렴도민감사관의 역량 강화 및 도정 참여 기회 확대
❖ 민·관 감사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소통과 화합의 청렴경북 실현

개 요

○ 일 시 : 2019. 10. 21.(월) 10:30 ~ 13:30
○ 장 소 : **경북도청 동락관**
○ 참석대상 : 520**명**(청렴도민감사관 456, 시·군 감사공무원 64)
○ 주요내용
- 모범 청렴도민감사관(23명) 표창패 수여
- 청렴콘서트를 통한 청렴마인드 함양
- 청렴도민감사관 활동사례 공유 등

시간계획

구 분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1부 (사전)	10:00 ~ 10:30	30′	• 참석자 등록 및 교재·명찰 배부	동락관 1층
	10:30 ~ 11:20	50′	• **청렴 콘서트**	
2부 (본행사)	11:20 ~ 11:25	5′	•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11:25 ~ 11:40	15′	• **모범 청렴도민감사관(23명) 표창패 수여**	**도지사**
	11:40 ~ 11:45	5′	• **인사 말씀**	**도지사**
	11:45 ~ 12:10	25′	• 청렴도민감사관 활동사례 영상 • 청렴도민감사관 역할	
	12:10 ~ 12:20	10′	• 청렴도민감사관 전달사항 안내 • 폐 회	사회자
중식	12:20 ~ 12:30	10′	• 이 동	동락관→구내식당
	12:30 ~ 13:30	60′	• 중 식	구내식당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0. 21(월)】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산업실 중소벤처기업노동과		
		작성자	과 장	이 근 식	
			팀 장	정필란	주무관 우병성
		연 락 처	054-880-2674		

경북도,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 21일 도청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 가져 -

경상북도는 중소기업중앙회와 21일 도청 회의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5월에 중기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와의 간담회에 이어 2번째로 개최된 이날 간담회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 유관기관장 등 40여명이 참석해 지역 중소기업의 다양한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김정욱 중앙회 대구경북중소기업회장은 “지역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한 경상북도 지원예산을 더욱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고,

박만희 대구경북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영세한 지역 금형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어렵다”며, “뿌리산업인 금형산업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지원해 달라”는 등 참석한 조합이사장들은 가감 없이 의견을 말했다.

이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조례를 지난 9월 제정하고 전국 최초로 모든 수출기업에 단체수출보험을 적용했다. 오늘 건의사항과 제언이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일본수출규제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을 위한 경상북도’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좋은 일자리 만들기로 경북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붙임 사진자료

중소기업중앙회「도지사 간담회」

개 요

○ **일 시** : '19. 10. 21(월) 16:00~17:30

○ **장 소** : 도청 호국실(209호)

○ **참석인원** : 40명 정도

- 중앙회 : **김기문 중앙회장,** 김정욱 대구경북중소기업회장, 임원 등
- 유관기관 : 김성섭 대경중기청장, 경북경제진흥원장

○ **방문목적** : 상호 인사, 현안사항 논의 등

시간 계획(안)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15:45 ~ 16:00	15'	▸ **티타임** - 지사님, 도 간부, 중기청장, 경제진흥원장 - 중앙회장, 지역회장, 중앙회부회장 3	도지사 접견실
16:00 ~ 16:15	1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인사말씀**(도지사, 중앙회장)	
16:15 ~ 17:15	60'	▸ **건의 및 간담** (주재 : 중앙회장) - 2~3개 건의 후 답변식으로 진행	
17:15 ~ 17:25	10'	▸ 마무리 말씀 및 폐회, 단체 기념촬영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0. 21(월)】	담당부서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작성자	과 장	김 준 호	
			사무관	도영호	주무관 정성길
		연 락 처	054-880-3918		

2019년 제9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 김천 문당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건부 가결'로 본격 사업추진 가능, 향후 인구유입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경상북도는 18일(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포항 우현동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2건을 심의해, 각각 재심의 및 조건부로 의결* 했다.

*심의결과 : ①포항 우현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재심의
②김천 문당지구 도시개발→조건부

포항 우현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지정은 2018년 7월 재심의 된 안건으로, 포항시 북구 우현동 일원 예전 미군유류창고로 이용되던 부지를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저렴한 민간임대주택(961세대)을 확대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위원회에서는 미분양율 등 지역 주변 현황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임대주택 수요에 대한 명확한 근거 부족 등의 사유로 재심의 결정했다.

김천 문당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김천 서북부 지역의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나 제대로 된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문당동 일대의 766,246㎡ 부지에 환지방식*의 도시개발(4,063세대 10,157명) 사업이다.

*환지방식 :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토지소유권 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사업비에 해당하는 면적(체비지)과 공공시설용지 면적 등을 공제(감보)한 후 잔여 면적을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되돌려주는 사업방식

대상지 인근 남측에 위치한 교동에는 김천나들목(I.C)이 있고 김천대

학교, 경북보건대학교, 종합스포츠타운, 법원 및 검찰청 등 인구유발 시설들이 밀집해 있고, 인근 동측에는 김천1일반산업단지(3·4단계)가 조성 중에 있어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및 배후 주거단지를 대폭 확충하는 김천 최초의 도시개발사업이다.

이번 심의에서 개발수요 등 계획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논의한 결과, 토지이용계획 일부 조정 등의 조건으로 가결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김천혁신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 지역에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새로운 배후주거단지 조성으로 신규 인구 유입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며,

또한, "기존의 인근 주민을 비롯한 조성 중에 있는 산업단지 신규 입주 근로자의 안정적인 택지공급과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주거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붙임 사진자료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0. 21(월)】	담당부서	미래전략기획단		
		작성자	단 장	김 성 학	
			사무관	이동진	주무관	김지혜
		연 락 처	054-880-4520		

두근두근 썸타는 여행 「썸남썸녀 가을에 취하다」

- 단풍이 물들 듯이 사랑에 물들고 싶은 청춘남녀들의 인연찾기 -
- 시즌1「썸남썸녀 봄에 미치다」에 이어 시즌2 행사도 성황리 개최 -

지난 4월 개최된「썸남썸녀 봄에 미(美)치다」에 이어, 청춘남녀들의 인연찾기 시즌2「썸남썸녀 가을에 취하다」가 돌아왔다.

가을을 맞이해 단풍에 물들 듯이 사랑에 물들고 싶은 도내 미혼남녀들을 위해 또다시 경상북도가 청춘남녀들의 낭만여행을 마련했다.

경북도는 19일(토) ~ 20일(일) 문경시 일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2019 청춘남녀 만남-데이 「썸남썸녀 가을에 취하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도내 직장인 26쌍이 참가했으며, 최종 12커플이 탄생해 50%에 가까운 매칭률을 보였다. 이는 역대 최고 실적을 냈던 시즌1 행사보다 더 높은 성공률이다.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가장 큰 요인은 젊은 층의 선호도를 적극 반영한 프로그램들로만 구성했다는 점이다. ▲문경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레일바이크 ▲직장인에게 인기가 많은 일일클래스 도자기 만들기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맛집탐방, 문경 약돌삼겹살 식당과 카페투어 등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여행코스를 설계했다.

또한, 참가자들의 피드백도 적극 반영해 행사가 끝난 이후의 인연유지에도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였다. 지난 봄 행사 참가자에 따르면, 행사 후 지속적인 연락과 만남을 갖기가 어려워, 힘들게 연결된 인연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참가자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팀 채팅방을 개설해 프로그램 수행에 적극 활용하고, 행사

후 친목모임 지원으로 자연스러운 만남이 유지되도록 진행했다.
이번 참가자 모집은 조기에 마감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특히, 커플매칭행사에 비교적 저조한 여성들의 신청이 적극적으로 변했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지난 봄 행사 때 자연스러운 여행컨셉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들의 반응이 좋았다는 평이 이어지며, 이러한 입소문 덕분에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인원이 선정됐다고 도 관계자는 밝혔다.

실제로, 지난 시즌1 「썸남썸녀 봄에 미치다」는 도내 여행지와 맛집 탐방을 테마로 "청춘남녀들의 낭만여행" 이라는 차별화된 시도를 통해 도에서 커플매칭행사를 개최한 이래 최고의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김성학 경북도 미래전략기획단장은 "도차원에서 청춘남녀들의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해 미혼남녀 매칭행사, 작은 결혼식 문화 조성 등 여러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매년 혼인율 저하와 만혼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며,

"청년들이 왜 결혼을 하지 않는지는 단순히 미혼남녀들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부문이 맞물려 있는 사회적 현상이므로, 결혼·출산·보육·일자리 등 삶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정책이 나와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 생각한다. 청년뿐 아니라,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경북형 시책 개발에 열과 성을 다해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일회성 매칭행사는 자연스럽고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내년부터는 이러한 점을 보완한 「썸남썸녀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2030세대들이 선호하는 취미활동을 중심으로 동아리를 구성해 활동을 지원하고, 도내 문화탐방 등 야외활동 병행으로 남녀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내년에 권역별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의 효과성에 따라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붙임 사진자료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0. 21(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		
		작성자	과 장	권 진 철	
			담 당	염정호	주무관 마성진
		연 락 처	054-880-2974		

경북도, 행복을 주는 소프트웨어(SW) 체험 캠프 열어

- 정보화 인재 마인드 함양 및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에 기여 -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은 19(토) ~ 20(일) 양일간 포항제철중학교에서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복을 주는 소프트웨어라는 주제로 ‘경상북도 청소년 소프트웨어(SW) 체험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체험 캠프는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접 창의적으로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해 볼 수 있는 경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정보화 인재 마인드 함양 및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 경북도는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60여명을 사전 신청 받았으며 참가비 등 전액 지원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정보과학관련 오엑스(OX)퀴즈, 마이크로비트의 활용, 팀별 아이디어 회의를 통한 생활 속 문제를 직접 발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SW)활용코딩, 작품 발표 및 시연 등 평소 어렵게만 느껴지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재미있게 익히고, 실습을 통해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였다.

김병삼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청소년들이 4차 산업혁명과 코딩프로그램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며, “이번 체험 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기초 소양을 함양하고, 컴퓨팅 사고력을 높여 미래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붙임 사진자료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0. 21(월)】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작 성 자	담당관	강 돈 영	
			사무관	오남현	주무관 이태옥
		연 락 처	054-880-2258		

경북도,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서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통합상담창구 열어 큰 호응

- 찾아가는 납세자고충상담, 지방세·국세 통합 상담서비스 제공 -

경상북도는 14일(월)부터 18일(금)까지 5일간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서 각종 세금으로부터 고충을 겪고 있는 납세자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무료 국세 및 지방세 통합세무 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서 문을 연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통합세무 상담창구는 경상북도 주도하에 대구지방국세청, 경주세무서, 경주시청이 함께 참여해 납세자들에게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세무상담이 되어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번 세무 상담은 지난해 경북도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설치된 이후 전국 최초로 국세납세자보호담당관과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합동으로 추진한 데 의미가 있고,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와 연계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거두었다.

이번 통합세무 상담창구를 이용한 방문객은 5일간 159명이며 하루 평균 32명 정도 이용했으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에서 온 한 방문객은 부친이 갑자기 사고도 돌아가시는 바람에 사고보상금, 합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부동산부터 부채까지 자식들이 언제 취득신고하고 언제 팔아야하는지 등 처리할 일이 막막했는데 차근차근 상담을 받고 나니 길이 보인다고 상당히 만족해했다.

경북도는 이미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이동상담 창구를 포항시 대형마트를 시작으로, 지역행사장인 김천시 직지문화공원, 안동탈춤축제장 등에서 납세고충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애로사항 등을 듣고 해결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공무원으로, 납세자는 누구나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해 권리를 요구 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잘 활용하기를 바란다” 고 했다.

또한, “도민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납세자권리보호를 위해 총력전을 계속 펼쳐 나갈 것이며, 연말까지 시·군 행사장을 비롯해 마을회관 등 다중 집합장소를 선정해 현장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계속 펼칠 계획이다” 고 말했다.

붙임 사진자료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0. 21(월)】	담당부서	환동해지역본부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과		
		작성자	과 장	허 필 중	
			팀 장	장영호	주무관 최진석
		연락처	054-880-7731		

경북도, 어촌 자매결연 마을 찾아 봉사활동 가져~

- 21일(월), 해양수산국 직원 자매결연 어촌마을 찾아 해안가 청소 등 봉사활동 -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해양수산국 직원들이 21일(월) 포항시 지경리에서 최근 태풍 등으로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어촌 자매마을을 찾아 일일 봉사활동을 펼쳤다.

최근 도내 해안 마을가에는 태풍에 의해 많은 해양쓰레기가 밀려와 해안경관을 해치고 냄새가 나는 등 어촌환경을 나쁘게 만들고 있지만 일손이 부족해 치울 엄두를 못내는 곳이 많아 어촌마을의 골칫거리로 남아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국 직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마을을 돕고자 2005년부터 자매결연을 맺어온 포항시 지경리 어촌마을을 찾아 해안 쓰레기를 치우고, 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생산한 고소득 품종인 우량 전복종자 2만 마리도 마을어장에 무상으로 방류하는 등 자매결연 어촌마을이 활력을 찾는데 힘을 쏟았다.

이날, 마을주민과 어촌계는 바쁜 가운데 자매결연 어촌마을 찾아준 해양수산국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어촌마을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양수산국 직원들이 힘을 써달라며 당부하기도 했다.

김두한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최근 어자원 감소와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어촌계 일자리 마련, 어촌관광 활성화 등 새로운 분야의 예산 투입 등 행정적 지원으로 우리 어촌이 정말 잘사는 어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붙임 사진자료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0. 21(월)】	담당부서	교육정책관		
		작 성 자	정책관	배 성 길	
			사무관	이성구	주무관	우병선
		연 락 처	054-880-4568		

경북도, 대학생 정책아이디어 토론 대회 예선전 개최!

- 전국 대학생 32팀 80여명 참가 열띤 토론 펼쳐져 -

경상북도는 19일(토), 도청 홍익관에서 전국대학생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대학생 정책 아이디어 토론대회’ 예선전을 개최했다.

이번 예선전은 ‘최저임금 1만원 현실에 부합한가?’ 라는 주제로 전국 32팀(2인 1팀)이 경쟁을 펼쳐 본선 대회 진출 최종 8팀을 선발했다.

예선전에 참가한 대학생 중, 프로네시스 팀의 고은학생(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은 “최저임금은 현재 대한민국의 초미의 관심사라 할 수 있다. 같은 또래들이 생각을 나누는 좋은 기회였다” 며, “오늘 토론대회로 좋은 아이디어들을 공유해 정책에 잘 반영됐으면 한다” 고 말했다.

화이부동팀의 서윤덕 학생(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은 “토론논제 공모전도 참가 했었고 경상북도 정책에 큰 관심이 있어 꼭 참여하고 싶었고 좋은 기회를 준 경북도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고 했다.

또한, 지역 출신 중 대구토박이 팀의 조영호 학생(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과)은 “경북에도 대학생들을 위한 좋은 토론대회가 개최돼 매우 기쁘다” 며, “우리 팀은 비록 아쉽게 8강에 오르지 못했지만 본선팀들은 모두 최선을 다해 열띤 토론을 하길 바라며 내년에 더욱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승까지 하겠다” 며 말했다.

최종 8팀에 오른 팀 중에서는 아띠 팀의 김가민 학생(숙명여자대학교 세무학과)은 “굉장히 치열한 대회였다. 예비 후보 1번 팀으로 예선참가도 불투명했는데 8강까지 오르게 되어 너무 기쁘다” 며, “어렵게 오른 만큼 꼭 우승까지 노려보겠다” 며 강한 다짐을 보였다.

한편 전국 대학생 정책아이디어 토론 대회는 경북도가 대학생들의 건전한 토론문화 정착과 소통과 공감능력향상을 위해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는 11월 2일(토)에 8팀이 최종 본선대회 우승자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배성길 경북도 교육정책관은 “대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토론대회 예선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최종 본선 대회에 오른 8팀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한다” 며,

“앞으로 있을 본선에서도 선의의 경쟁을 펼칠 것을 당부하며 대학생들의 토론문화 정착 및 새로운 정책아이디어 발굴에 많은 기대를 한다” 고 말했다.

붙임 사진자료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0. 21(월)】	담당부서	교육정책관			
		작 성 자	정책관	배 성 길		
			사무관	이성구	주무관	박근철
		연 락 처	054-880-4563			

경북 도-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 통한 교육협치 강화

-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교육청과 지자체 간 상호협력 및 해결방안 모색 -

- 김장호 기획조정실장 교육행정협의회 참석... 경북 교육의 발전과 중요성 강조 -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은 교육정책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교육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1일(월) 도 교육청 화백관에서 「2019년도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김용국 경북도교육청 교육국장, 지역교수, 도의원 등을 비롯한 교육행정협의회 위원, 도 및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상호협력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는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간 학교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로 2010년부터 교육현안에 관한 협의·소통 창구역할을 담당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된 현안은 ▲중모고등학교 농업계 특성화고 전환 ▲2020년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 편성현황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시행 추진 ▲어린이·청소년 대상 농촌체험학습 활성화 ▲초·중등학생 인구교육 활성화 ▲사립유치원 보조사업 지원비율 조정 ▲뮤지컬 예술재능 지원 및 학급설치 확대 등 7개 안건에 대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합의된 안건으로는 '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의 재원부담을 도·교육청 공동지원으로 변경하고, '뮤지컬 예술교육

지원 확대’를 위한 위탁학급 형태의 교육지원 추진,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시행 추진’을 위한 고 3학년 무상급식비 추가재원 분담, 폐교위기에 처한 ‘중모고등학교의 농업계 특성화고 전환’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 ‘2020년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관련 세출예산 편성 협의’ 등으로 상기 협의 건에 대해서 양 기관은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양 기관이 함께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붙임 사진자료

2019년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 및 해결방안 모색

회의개요

○ 일　　시 : 2019. 10. 21.(월) 10:30

○ 장　　소 : 도교육청 행정지원동 화백관

○ 참석인원 : 20명 정도(협의회 위원 6명 및 협의안건 담당부서장 등)

- 당연직 위원 : (도)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관
  (교육청) 김용국 교육국장, 심영수 정책기획관
- 위촉직 위원 : 이대형 경북도립대교수, 이칠구 경북도의회 의원
- 협의안건 7건(도 4, 교육청 3)

○ 주요내용 : 각 부서에서 제출한 안건 협의(붙임)

○ 주　　관 :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0:30~10:34	04 ´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진행 : 교육청 교육협력관(간사)
10:34~10:38	04 ´	▸ **인사말씀** **기조실장, 교육국장**	
10:38~11:28	50 ´	▸ 교육행정협의회 안건 설명 ▸ 실무협의회 협의결과 설명 ▸ 종합토론 – 의견 개진 및 토의	* 회의주재 – 교육국장 (교육청)
11:28~11:30	02 ´	▸ 폐회	
11:30~		▸ 오찬장 이동	

참 고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 관련규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 설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8조(전입금 세출예산 협의 등)

○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08.7.14 제정, 교육청)

□ 위원회 개요

○ 주요기능 : 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 지원사업 등에 관한 협의·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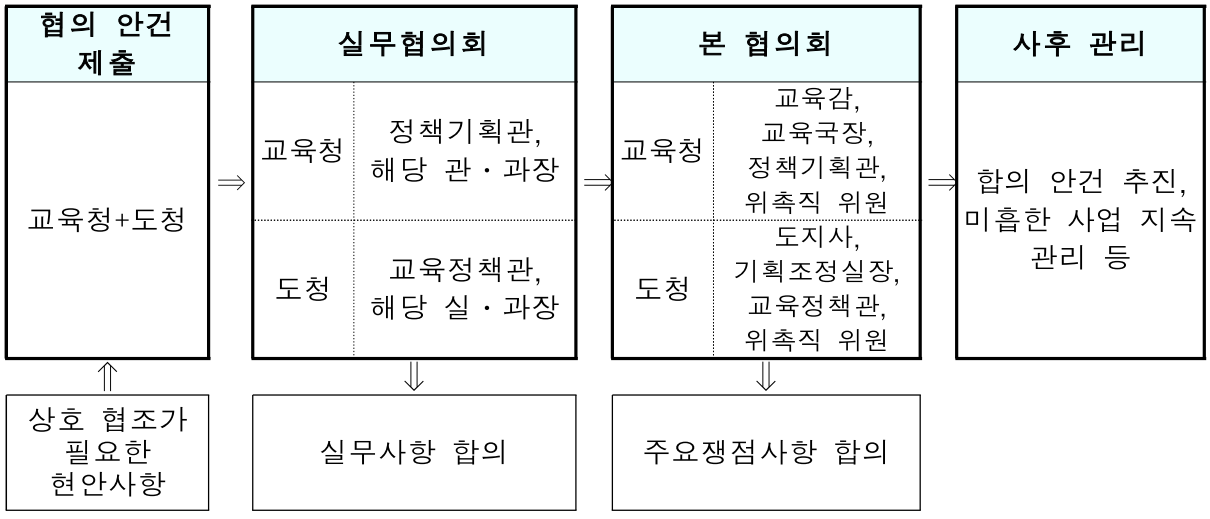
○ 담당주관 :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 개최실적 : 본 협의회 3회('16 ~ '18), 실무협의회 9회('10 ~ '18)

○ 위원현황(10명)

구분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청		임기
	직위	성명	직위	성명	
공동의장	교육감	임종식	도지사	이철우	재임 기간
당연직	교육국장	김용국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해당 직위 재직 기간
	정책기획관	심영수	교육정책관	배성길	
위촉직	안동대 교수	김광수	경북도립대 교수	이대형	'21.02.08.까지
	도의원 오세혁, 도의원 이칠구				'20.06.30.까지

□ 협의회 개최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화공 굿모닝 특강’ 참석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0. 22일(화) 오전 7시 20분 도청 다목적홀에서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를 초청해 「수축사회와 미래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화공 굿모닝 특강’에 참석한다.

□ 이철우 도지사, ‘확대 간부회의’ 주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0. 22일(화) 오전 9시 도청 회의실에서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한다.

□ 이철우 도지사, ‘제19기 민주평통 경북지역 운영위원회’ 참석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0. 22일(화) 오전 11시 도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제19기 민주평통 경북지역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한다.